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12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조영신 성장동력정책과장(2110-4754), 박종학사무관(4755)		

융합 新산업 확산 위해 기업들 한자리에 모여...

- 異種 기업·전문가가 함께 소통·공생하는 「산업융합발전 포럼」 창립 -
- 헬스케어(건강), 스마트 안전, 스마트카 등 사회·경제적 문제해결 모색 -

□ 지식경제부는 12.18(화), 산업융합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TRI 등 산업융합 관련 주요 기관장과 중소기업 대표, 학계·연구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융합발전 포럼」 창립행사를 개최

○ 아울러, 창립총회를 통해 포럼 운영위원장으로 오영교 이사장('미래와 세계', 前 행안부장관)을 선출하고 이남식 총장(계원예술대), 정진엽 원장(분당서울대병원), 최재천 교수(이화여대) 등 융합관련 저명인사 20여명을 포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이날 포럼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세계경제가 인문-기술, 산업-문화·예술 등이 하나로 통합(All in one)되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 '大융합의 시대'로 급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 "글로벌 융합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데서부터 융합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금번 산업융합포럼의 의의를 역설

○ 또한, 기업·전문가 간의 소통으로 만들어 내는 좋은 사업모델과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걸림돌 해소와 R&D, 사업화 지원 등 정책적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 포럼을 통해 발굴·제안되는 융합 성공모델, 제도·정책적 개선과제는 부처 협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등 정책 연계

□ 금번 포럼은 중소기업의 융합화를 위한 실질적 애로해소와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을 목표로, 매년 핵심 융합신산업 분야 3내지 4개 분과를 구성 운영키로 함

○ 이에 2013년(1차년도)에는 기업의 관심이 많은 '헬스케어', '스마트 안전', '스마트 수송' 분과를 우선 운영하고, 기업 수요 등 필요에 따라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분야로 확대 나갈 계획

○ 또한, 단순한 만남과 의견수렴의 場이 아닌 참여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 분과별로 핵심 사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분과활동(소분과 활동)'에 초점을 두기로 함

< 「산업융합발전 포럼」 주요 활동 방향 >

① 각 분과별로 핵심 융합사업 Item을 기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관 異種분야 대·중소기업·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분과 그룹'을 구성

② 소분과 단위로, 참여 기업·전문가 間 기술·정보·아이디어 교류를 통해 융합화 성공사례, 협력 비즈니스 모델 등을 발굴, 공유

③ 발굴된 사업화 모델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법제도, 표준·규격, 업종관행 등) 개선과제와 R&D·사업화 등 정책적 지원과제를 도출, 제안

○ 아울러, 동 '산업융합발전 포럼'은 산업융합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 포럼으로서 기존 운영중인 로봇융합포럼, 웰니스융합 포럼 등과도 연계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

□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 "그간 정부에서 많은 융합정책을 발표하고 융합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함께 할 기업과 기술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 "이번 산업융합포럼이 다른 기업·기술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 준 만큼 적극 참여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며 기대를 밝힘

< 붙임 1 > 산업융합발전 포럼 창립행사 개요
< 붙임 2 > 산업융합발전 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 붙임 3 > 산업융합발전 포럼 운영계획(안)

붙 임 1 「산업융합발전 포럼」 창립 행사 개요

□ 개최 배경

○ 글로벌 大융합 시대를 선도하고 국가 新성장모멘텀 창출을 위한 토대로서, 산업현장(기업)에서부터 융합문화를 확산하는 場을 마련

○ 異種 기업·전문가 간 소통을 통해 융합 성공사례 및 사업화 모델을 발굴·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도출

□ 행사 개요

○ 일　　시 : 2012년 12월 18일(화) 15:30 ~ 18:00

○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F 그랜드 볼룸)

○ 주　　관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참 석 자 : 산업융합 주요 기관장, 기업인 및 전문가 등 100여명

＊ 오영교(미래와세계 이사장), 이남식(계원예대 총장), 김은호(융합중앙회 회장), 최재천(교수) 등

○ 주요내용 : 포럼 창립선언, 운영위·분과위 구성 및 주요 운영방향 등

□ 프로그램(안)

	시간	프로그램	비고
개회 (1부)	15:00 – 15:30	**등록**	
	15:30 – 15:40	**개회** · 개회사 · 축사	오영교(운영위원장) 홍석우(지식경제부 장관)
	15:40 – 15:45	**추진 경과보고**	산업융합지원 센터
	15:45 – 15:55	**포럼 창립선언(Photo Time)**	참석자 전원
	15:55 – 16:00	Coffee Break	
강연 및 토의 (2부)	16:00 – 16:05	**퍼포먼스 공연**	퍼포먼스팀
	16:05 – 16:45	**기조 강연**	최재천 교수
	16:45 – 17:00	**산업융합 현황 및 정책 방향**	지식경제부
	17:00 – 17:05	**포럼 운영계획**	산업융합지원 센터
	17:05 – 17:55	**만찬** · Round Table Discussion	Table 별
	17:55 – 18:00	**마무리 말씀**	오영교(운영위원장)

붙 임 2 「산업융합발전 포럼」 운영위원 명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등
	오영교 (65세)	'미래와 세계' 이사장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제12회 ·제7대 행정자치부 장관 ·제16대 동국대학교 총장
	이남식 (57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 박사 ·Bloomfield College 명예 인문학박사 ·제2대 국제 미래학회 회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김은호 (65세)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동진이공 회장
	김용근 (57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제23회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차관보) ·제2대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김경원 (54세)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미 일리노이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제23회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김흥남 (56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전산학 박사 ·한국정보처리학회 부회장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
	허경 (56세)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석사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국 국장
	나경환 (55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한국과학기술원 생산공학 박사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 본부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민간위원
	윤의준 (51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매사추세츠공대 전자재료학 박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한국광전자학회 부회장
	최정숙 (53세)	한국 여성 벤처협회 회장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등
	최재천 (58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서울대 동물학 ·美 하버드대 생물학 박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유인경 (60세)	한양대학교 교수	·USC 전기공학 박사 ·삼성전자 상무/전무 ·KAIST 초빙교수
	이동만 (52세)	KAIST문화기술대학원 원장	·KAIST computer science 박사 ·KAIST 전산학과 교수 ·한국 인터넷주소 분쟁위원회 위원장
	정진엽 (58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김영준 (53세)	삼성전자 전무	·영남대 응용미술학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이사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디자인연구소장
	박상준 (51세)	SK텔레콤 신규사업추진단장	·서강대학교 경영학 ·와이던댄 대표이사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채귀한 (56세)	현대모비스 상무	·한양대학교 ·한국자동차공학회 의원 ·현대모비스 메카트로닉스개발센터장
	장준근 (45세)	(주)나노엔텍 대표	·서울대 기계설계, 의용생체공학 ·(주)디지털바이오테크 대표 ·서울대(전기공학) 교수 ·국과위 전문위원
	김경준 (50세)	딜로이트컨설팅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석사 ·딜로이트컨설팅 전략오페레이션부문 대표
	심영섭 (59세)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려대 경제학 ·프랑스 그르노블대 경제학 박사 ·前)산업연구원 부원장 ·규개위 경제분과 위원장
	최만범 (55세)	한국산업융합협회 부회장 (회장 공석中)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행정고시 제28회
	안미정 (52세)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융합신산업 MD	·러시대학대학원 면역학 박사 ·이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붙 임 3 「산업융합발전 포럼」 주요 운영계획(안)

1. 추진 배경

□ 글로벌 융합화 추세에 대응, 실질적 산업 大융합 문화 및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 활성화

○ 특히, 산업전반의 융합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異種 기업-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소통-창출"하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 융합문화의 場' 필요

☞ 부처·업종 영역을 넘나드는 자발적 소통으로 창의·혁신적 사업화 모델 창출
→ 주요 안건(제도개선, R&D·사업화 지원)의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상정 등 정책 연계

2. 추진 방안

□ **[추진체계 및 구성]** 운영위 및 주요 분과 등으로 체계적 운영

○ (**운영위원회**) 산업계 및 유관기관·학계 대표 등 약 20명 내외 구성

* 위원장 : 산학연 전반의 리더쉽 등을 감안, 오영교 '미래와 세계' 이사장 (前 행안부장관) 추천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운영위원 : 이남식(계원예대 총장), 정진엽(분당서울대 병원장), 김용근(산업기술진흥원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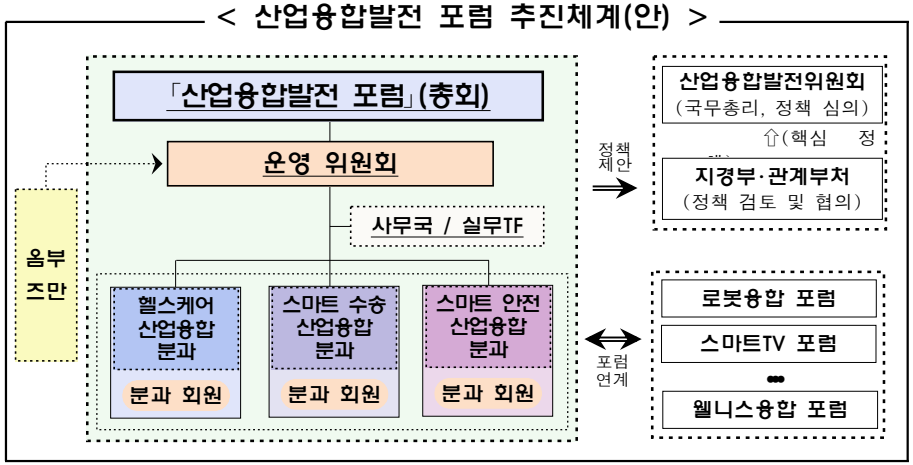
○ (**분과위**) 중소기업의 실질적 애로해소, 협력사업 모델 발굴을 목표로, 핵심 융합신산업 분야 3~4개 분과를 구성·운영

* 1차년도('13년) : 「헬스케어」, 「스마트수송」, 「스마트안전」 3개 분과 우선 구성 (필요시,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융합분야 추가)

- 분과별 핵심 사업화 Item을 중심으로, 異種 대·중소기업·전문가 참여

☞ 분과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융합지원센터(사무국) 및 분과별 연구·기획 간사 등으로 실무지원 T/F 운영

< 산업융합발전 포럼 추진체계(안) >



☞ 칸막이形 규제/관행 개선 지원을 위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참여

☞ 旣 운영 중인 포럼(로봇, 스마트TV 등)과도 연계하여 운영 (주요 결과→ 운영위 논의)

□ **[포럼 운영]** 총회는 년 1회, 운영위·분과위는 반기별 개최 원칙

○ 각 분과위는 년간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포럼 총회' 개최時 운영위원회에 보고 (→ 운영위는 주요 정책건의(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안)

* 각 분과위는 소그룹 회의(Item 중심), 분과토론회·워크샵 등 수시 활동

3. 분과별 주요 활동 방향

◇ 각 분과별로 핵심 융합Item을 기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관 異種분야 대·중소기업·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분과 그룹'을 구성

◇ 異업종 참여기업, 전문가 間 기술·정보·인력 등의 상호 교류를 도모하고, 융합화 성공사례·사업모델 등을 발굴·공유

* 창의적 융합 아이디어·정보 교류, 소그룹 융합화 코디네이팅 등을 통해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유망Item과 협력·비즈니스 모델 등을 도출

◇ 발굴된 사업화 모델 관련, 걸림돌 규제(법·제도, 표준·규격, 업종별 관행 등) 개선, R&D 과제, 사업화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

1 헬스케어 산업융합 분과

○ 건강·복지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대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예방적 의료체계' 요구 증폭

○ 하지만, 의료법 등 법제도적 제약, 기기-시스템 간 표준·호환성 불비, 생명·건강정보의 신뢰성·보안성 문제 등 다양한 장애요인 산재

⇨ 건강정보의 신뢰·보안성 제고방안과 함께 의료계-산업계간 윈-윈 협력모델, 공공(복지형)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보험 연계성 등을 종합고려,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의료법 등 법제도 정비방안 모색

⇨ 법제도 정비방안을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분야의 유망 사업화 Item·모델을 도출하고 표준·규격화 및 검·인증 방안 등을 마련

☞ 지능형 의료기기, 병원IT화 및 수출산업화, 유전체기반 신약개발 등도 추가 검토

2 스마트 수송 산업융합 분과

○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IT·SW, 콘텐츠, 디자인 등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경쟁력 확보가 중요

○ 특히, 중소 부품·내장제품 업체의 IT·콘텐츠 융합화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소, 중소-중소간 공생적 비즈니스생태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중소기업의 글로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수송시스템용 IT·SW 융합부품 Item 발굴 및 대·중소, 중소-중소 협력모델 개발

⇨ 스마트 자전거 등 중소기업 전용분야 융합 신제품·사업모델 발굴

3 스마트 안전 산업융합 분과

○ 범죄 등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과 함께 다양한 안전제품·서비스 新시장 창출 기대

⇨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서비스 등을 활용한 범국가적 생활안전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 모색

⇨ 홈네트워크, 모바일시스템 등에 기반한 민간차원 생활안전서비스 사업화 모델, 영상인식 지능형 센서 및 제품 新시장 창출 방안 등 도출